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4개 사업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5년 사업지구인 '신촌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인용 여부를 의결하고, 2016년 사업지구인 '원승부·신용호 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결정했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 기준과 지적공부 정리 정지대상 등을 결정했다. 시는 위원회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정금 산정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대상 직무 교육

정읍시보건소는 보건소 회의실에서 보건행정 최일선 담당자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외부 전문가 강사로 나서 ▲심폐 재활이론 지도방법 ▲의료법과 일상생활에서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안내해 지역 주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량 강화를 꾀했다.

또한 자살 예방 교육도 실시해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로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 시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

쓰레기 투기지역에 꽃길 조성

김제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0일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백구면들기에 나섰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퇴비와 화분을 후원받아 편지 등 불꽃을 심어 스스로의 노력과 참여로 백구면 유감리의 총 7곳에 꽃길을 조성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백구 만들기와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발을 견어불인 결과 작년 한해 불법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 든 성과도 거두게 된 바 있다.

/김제=곽태기자

정읍장학숙 농·축산물 판매장 개장

경기·수도권 지역에 정읍 농·축 특산물 판매·홍보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정읍장학숙 내에 정읍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들어섰다.

시는 30일 장학숙 내 1층에 정읍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농·축산물 판매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약 96㎡ 규모의 판매장은 판매대와 자문자랑고, 냉장·냉동 쇼케이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앞으로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정읍 농·축 특산물 판매와 함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읍 농·축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판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 개장식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하여 유진섭 시의회 의장, 김순희 해당정화회 회장, 정태하 재경시민회 회장, 김기춘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광명항우회 회장, 박주경 안산항우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시장은 "정읍의 질 좋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출향인사들이 고향의 농축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특히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우수 상품과 소비자 신뢰를 홍보, 경기·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읍 농축산물 판매와 홍보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장학숙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건립했고, 정월 08일 38일의 기속사이다.

개관 이후 독서실과 체력 단련실, 상담실, 게스트룸, 휴게실, 식당, 라운지,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의 최신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읍의 미래 인재들의 역할을 맡겨 펼칠 수 있는 보급자 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2019~2020년 국비 확보 위해... 선정시책 인센티브 부여

부안군이 오는 2019~2020년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30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갖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강 소준을 만들기 위해 6급 중간 간부들이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추진됐으며 우수시책을 선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종규 군수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군청 실과소장을 비롯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시책을 발굴한 부서별 팀장 및 무보직 6급들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시책은 부서별 팀장 및 무보직 6급 192명이 총 392건의 시책을 발굴 보고했으며 전북대 신환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3명과 주민대표 6명, 대학생 대표 2명이 참여해 시책을 평가

했다.

이날 발굴된 시책들은 전문가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국가 예산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의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발굴된 시책은 소·공·봉 행정을 통해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 설명회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실장 양은업)은 30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도 3대 핵심과제인 '토탈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향토, 개·친·맛·값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사업 및 2017 전북관광의 해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향토, 개·친·맛·값(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이 저렴한), 모범 음식점은 관내 청결한 위생시설과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48개소 음식점으로 시에서 엄선하여 지정되었으며, 이날 음식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전북투어패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사용방법, 운영 현황 등을 알렸다.

특히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가맹점 대표들이 적극 참여하여 할인 혜택 제공 시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김제시는 현재 자유이용시설 1곳, 특별할인가맹점 40개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2시간 무료이용 등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금산사와 벽골제 관광안내소에서 투어패스 카드를 판매 중에 있다.

또한 자유이용시설 및 특별할인가맹점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하여 도내 특정지역과 장소에 편중된 관광객들을 김제시로 유치,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광 만족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김제=곽태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달 7일~12일까지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자생차 페스티벌

새봄을 맞아 다양한 자생식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자생차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정읍시 벚꽃로 401)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제13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와 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생화(花)와 자생차(茶)가 함께하는 어울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파초일엽과 백두산 만병초를 비롯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식물 등 자생식물을 전시하고 정읍에서 생산된 자생차를 시음할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기간 자생식물 체험과 판매관, 자생차 홍보와 판매관 블랙베리 홍보관, 치유농업체험관 느린 유통 등을 운영하고 시 지역 내 주민 농특산물 쇼핑몰인 단풍이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품위와 산미는 두메부추 등의 자생식물을 새로운 소득 작물로 발굴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읍시가 자생화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시회장을 찾은 모든 분들이 자생차 한 잔으로 봄의 향기를 만끽하며 삶의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밝혔다.

한편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생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물론 정읍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자생차 페스티벌은 정읍은 물론 우리나라 차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쌀 '천년의 솜씨' 재배 전문교육 실시

부안군이 부안쌀 '천년의 솜씨' 재배 전문교육이 군청 중회의실에서 농업인 RPC 대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신동진 벼를 육종한 농촌진흥청 김보경 박사를 초청해 신동진 보급종자 사용, 6월 10일 이상 질소비료 반당 7.0kg 이하 사용, 병충해 사전 예방 등 고품질 쌀 생산 전문교육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명품 부안쌀 '천년의 솜씨' 원료곡 생산을 위해 95개 단지 2200ha에서 재배한 원료곡 1만 5400톤을 확보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밥맛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성공적 원료곡 확보를 위해 보급종자 공급, GAP 인증, 생산장려금 및 판매장려금 지급 등 9억 7000여만원을 준비 100%로 지원한다.

부안쌀 '천년의 솜씨'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표준 매뉴얼을 작성·보급

하고 수확 후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이상의 비단 수매해 별도 사일로에 보관·가공·출하함으로써 이미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최고로 밥맛 좋은 쌀로 호평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쌀 10대 브랜드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안쌀 '천년의 솜씨'는 전국 흙플러스, 흙플러스 익스프레스 마트, 하나로 마트와 부안오복드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쌀 '천년의 솜씨'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수확과 함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교육(PIS)을 병행 실시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은 물론 수입 및 국내 유통시장의 진류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